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원통보전 원 주인은 따로 있었다

낙산사 목조관세음보살 소견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낙산사는 엄연히 2003년에 보물로 지정된 제 1362호 건철관세음보살좌상이 있는데, 무수 목조관세음상이나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1950년에 조선 시대에 지어진 낙산사 원통보전이 불타기 전에 사진에 나오는 이 목조보살상이 원통보전에 좌정하고 계셨다.



낙산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지난 백년간 낙산사 원통보전은 두 번 불타고 두 번 새로 지어졌다. 사찰과 같은 목조건물에 불이 나면 남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밖에 없다. 첫째는 지붕을 이는 기와이다. 수막새, 막새기와, 와당 같은 기와들이 불탄 자리에 남는다.

이 난다. 바닷바람으로 전각의 기와장이 날아 떨어지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다.

사실이 목조관세음보살 좌상은 조선 시대 원통보전에 좌정하고 계셨던 불상이다. 6.25 당시 폭격으로 불타버린 원통보전에 원래 보전돼 있던 불상이다. 후불탱은 사방에 사천왕상이 둘러 서있고, 파스한 미소를 지닌 아미타불 부처님이 목좌하신 그 앞에 천연스러운 웃음을 띤 관세음보살상은 정경기만 하다.

6.25 당시 폭격으로 소실

자비 미소 사진으로만 남아

전각 속에 있던 어느 것도 다 불타 버린다. 불상이 목조이든 철조이든 석조이든 불불은 전각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몇 천도까지 올라가는 불이 달아 버리면 녹아버리고 깨져버리고 터져버린다.

그 후속에 보면 목조 선재동자가 살짝 보이는 것을 보면 좌보처에는 동해 왕양상이 있었을 것이다. 손에든 정병(군타카)은 언제든지 목마른 중생이 물을 달라하면 바로 내줄 수 있게 양손으로 받치고 들고 있으시다. 머리엔 화관(花冠)을 쓰셨는데, 화관의 중앙에는 화불(化佛)인 아미타불 부처님이 앉으셨다.

화려한 영락은 온 몸을 감싸고 통견의 옷자락은 아름다운 당채 빛깔을 흠뻑 물들이고 있다. 이토록 다정한 관세음보살님은 화마에 불타버리고 지금은 사진으로나마 예전의 원통보전 주인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하겠다.

온국민이 사랑하는 낙산사 원통보전의 원래 주인을 보신 분이 많지 않을 듯 하여 이 사진을 공개해본다. 열대야에 시달리는 많은 불자들에게 시원한 버드나무가지에 물

을 달아 뿌려서 청량(淸涼,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 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순백의 燈이 되어 세상 밝힌다

곽훈 '시(詩)·다(茶)·선(禪)'展

곽훈 작가의 '시(詩)·다(茶)·선(禪)'展이 8월 14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대구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불교사상과 동양철학이 깃든 시(詩), 다완(Tea bowls), 관조(Contemplations), 곱·소리(Kalpa·Sound) 등 4점의 설치작품이 전시된다.

곽훈 작가는 부정형한 화면구성과 자유롭고 활발한 붓터치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추상표현주의적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를 통해 불교사상과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적 재료 흙 종이 나무 도기 등을 활용한 작품으로 추상표현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그의 표현 정신은 이제 회화를 넘어 설치작품을 통해 보여진다.

신작 '시(詩)'는 높이 4.6미터, 가로세로 9미터의 대규모 작품으로 미술관 2층 천장 공간을 활용해 관객들을 찾아간다. 작가의 정서적 상태와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곽훈의 또 다른 예술 활동인 시(詩)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곽훈은 "내게서 시는 그림과 동일하다. 추상의 은유적 표현이 여의치 않을 때 시를 써 그림의 내부를 본다. 시 안에는 그림이 가득하다. 모르긴 해도 글을 쓰는 사람이 미술을 모른다는 것은 엄살이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감성이 길러지고, 감각을 고도화하는 기술이 쌓이는 건 양쪽 분야가 마찬가지로"라고 말한다.

작품은 빛, 공기, 습도, 바람 등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얇은 순지와 설치물 위한 가는 실만을 이용해 완성됐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천창에 설치된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는 빛의 변화를 섬세하게 뽑아낸다. 이는 순백의 불교식 등(燈)을 연상케 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시적 명상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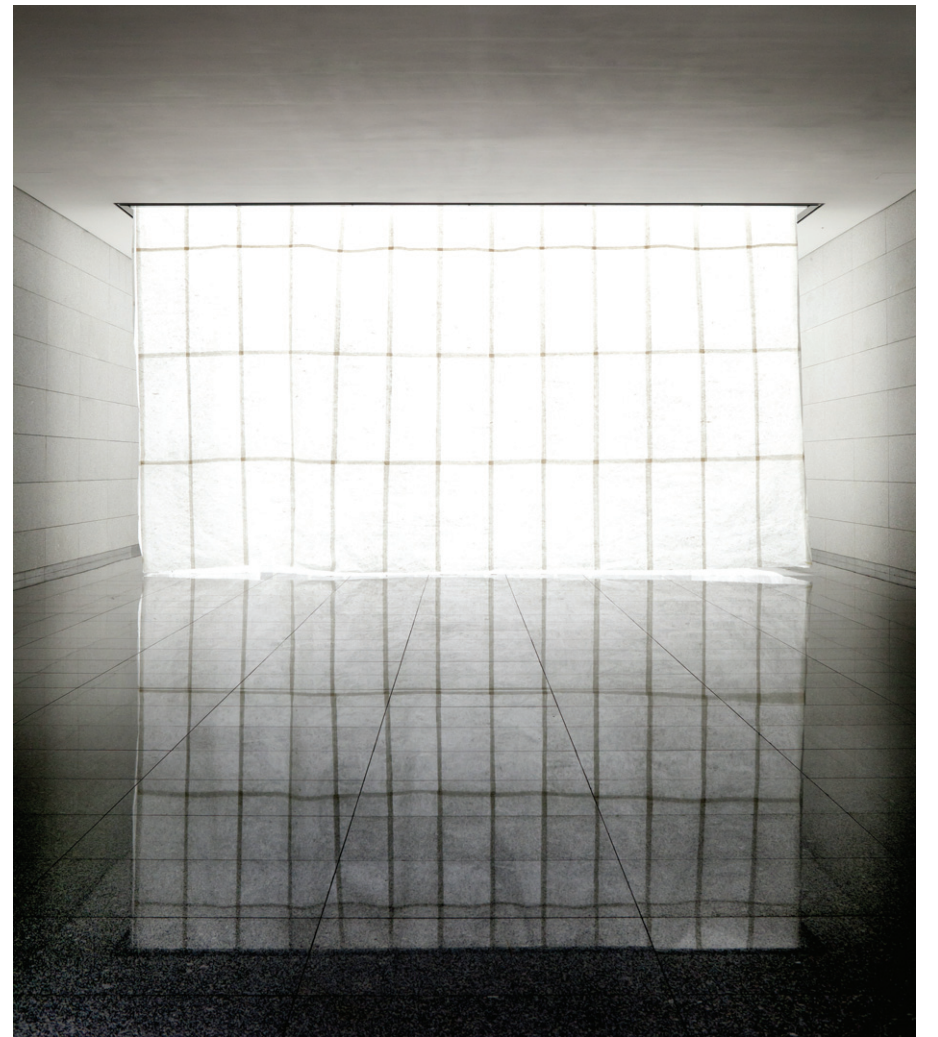
'다완(Tea bowls)' (1998)은 LA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소개된 바 있는 곽훈의 대표적 설치작품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표면이 바래거나 녹슬고 부식된 다완들의 형상은 자연과 교감하며 형성되는 한국의 미의식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개의 다완들이 전시 공간에 적합한 배열과 구성으로 재설치(Reinstallation)돼 관객들을 찾아간다.

불교사상 동양철학 깃든 설치작품  
얇은 순지 이용해 '燈' 모양 재현  
8월 14일부터 대구미술관서 전시

'관조(Contemplations)' (2000), 곱·소리(Kalpa·Sound)(1995)는 생과 사에 대한 작가의 오랜 성찰과 수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작품 '곱·소리'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인 이래 다양한 형태로 소개돼 왔다.

이번 전시는 시(詩), 다(茶), 선(禪)의 세 가지 주제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사유의 시간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대구미술관은 전시기간 중 곽훈의 작품세계를 심도 있게 연구해온 평론가 황인익 씨를 초청해 '작가와 대화'도 진행한다.

곽훈 작가는 1941년 경북 달성 출생으로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75년 도미해 1981년 LA시립미술 관장이었던 조선



곽훈의 신작 '시(詩)'. 이 작품은 얇은 순지와 가는 실을 이용한 설치 작품으로 불교식 등을 연상케 한다. 곽훈 작가의 '시(詩)·다(茶)·선(禪)'展이 8월 14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대구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양고 스타텔스에 의해 발탁돼 신인전을 개최 미국 화단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활동을 재개한 작가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대규모 설치작품 '곱·소리=마르코 폴로가 동양에서 가져가지 못한 것'을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문화재 제대로 즐겨요”

불교중앙박물관 문화 체험 강좌 개설

문화재 강좌·부채그리기 등  
8월18일부터 박물관시청각실서

불교중앙박물관이 여름 방학을 맞아 '불교문화재, 제대로 즐기자'를 실시한다. 8월 18일~9월 22일 불교중앙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2012년 하반기를 맞아 마련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불교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좌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재 관

련 강의는 물론 부채 채색으로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체험 시간도 마련된다.

불교중앙박물관 김혜원 씨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유물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 강의는 불교문화재의 이해를 돕기 위해 ppt를 활용해 자세한 설명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험프로그램 재료비는 인당 5000원이며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재료비는 인당



지난해 실시된 부채체험전

3000원이다. 교육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전화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02) 2011-1960

정혜승 기자

진관사 사찰음식 특강

“자연을...” 9월 7일까지

진관사는 9월 7일까지 산사음식 여름특강을 실시한다. '자연을 먹고 마음을 비운다'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강연은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시 진관사 산사음악연구소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진관사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사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강이다. 참가자들은 요리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통해 전통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의는 ▷도토리묵냉채 표고버섯장조림 깻잎양념무침 ▷메밀들깨국수 두부장아찌 비름나물무침 ▷묵이비빔국수채 고추장떡고구마순나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02) 359-8410

Advertisement for Buddha Shopping (동진기획·붓다쇼핑) featuring various Buddhist-themed products like calendars, postcards, and stationery. It includes a large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2013 Buddhist Calendar Special Price) section with prices like 800 and 1,100 won. The ad also lists various items like '종이영가웃' (Paper Prayer Cards) and '예수재함' (Prayer Boxe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quantities.